

2016년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심의결과 발표

- 일시 : 2016년 9월 29일 17:00
-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리딩룸
- 심의위원 : 김갑수(전통예술), 김미혜(연극), 김성녀(전통예술), 김철리(연극), 박재성(음악), 이병훈(연극), 이창녕(음악) (가나다 순)

2016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은 총 72건이 신청되어, 두 차례의 심의를 통해 30건의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단계별 심의에서 장르별로 세부토론과 PT심의를 거쳐 개별채점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선정을 위해 원로예술인의 역할이 돋보이는 공연과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하는 공연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공모에 공지된 바와 같이 15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50%, 16년도 사업계획을 50% 반영했고, 신규 사업은 16년도 사업계획을 100%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 일동은 이번 심의에서 원로예술인의 참여비율과 역할,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프로그램의 구성(30%), 단체의 수행능력(20%),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력(30%)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지원금액은 신청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다.

심사위원 일동은 사업평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개선과 현장 모니터링 위원의 다양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2016년도 사업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심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되었으면 한다.

2016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